

“힘 모아 호남 상생” 3개 자치단체장 머리 맞댄다

19일 인천서 광주, 전남·북 시도지사 간담회

5년만의 회동...공동 현안사업 속도낼지 관심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권 3개 시·도 단체장이 호남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 2009년 이후 5년만의 공동 회동으로, 정부의 호남소외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호남권 발전을 위한 ‘호남 상생 현안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회동이 호남 상생의 밑거름

이 되기 위해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최근 인터뷰<광주일보 7월 21일자 4면>에서 밝힌 ‘호남에서의 전북 소외’를 우선 이해하고,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 등 전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인천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

지사, 송하진 전북지사가 만날 예정이다. 호남권 3개 시·도 단체장은 이날 오후 7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에 앞서 오후 3시 30분부터 호남 상생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선 6기들이 호남권의 공동 해결 과제로 떠오른 KTX호남선 개통에 따른 수도권과의 경쟁력 확보방안, 광주 문화전당~전주 한옥마을~여수 세계 박람회장 등을 연계하는 공동 관광벨트 구축, 전남 J프로젝트와 전북 새만금 개발사업의 상생 방안, 광주·무안·군산 등 3개 시·도 공항의 상생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시·도는 이번 회동에서 호남상생에 대한 의지가 모일 경우 향후 구체적인 상생 일정과 협의체 구성 등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6기 들어 추진중인 광주·전남 상생 프로젝트에 전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개 시·도는 자치단체장의 만남이 5년 만에 이뤄진데다 민선 6기 호남권 자치단체장의 상견례 자리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정책적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보다는 상생 의지를 확인하는

성격이 크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는 민선 6기 호남권 3개 시·도 단체장의 첫 만남이 자칫 정치적 모임으로 해석·포장돼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광주·전남 시·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일정이나 내용은 없으며, 첫 만남인 만큼 호남상생을 주제로 한 가벼운 의견 등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호남 상생과 관련해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적으로는 호남소외, 호남안에서는 전북 소외가 상당기간 지속됐다. 호남상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같은 전북민들의 ‘심리적 간극’을 메우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전북은 아직까지 광주·전남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지만, 역으로 광주·전남은 새만금 사업부터 전북 국제공항 조성 등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하면 반대하고 나섰다”며 광주·전남의 전북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상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가운데)이 15일 취임 후 자치구 첫 순방지로 광주 동구청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글날 전남도청서 ‘우리말 겨루기 대회’ 참가자 26일까지 접수

참가자 26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목포대 국어문화원과 함께 오는 10월9일 훈민정음 반포 568돌을 맞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제2회 전라남도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는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도민 가족 150팀을 대상으로 KBS에서 방영 중인 ‘도전! 골든벨’ 방식의 ‘우리말 달인 선발대회’와 유치원·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도민 가족 40팀을 대상으로 몇 개의 우리말 임무를 부여하고 최단 시간 달성자를 가르는 ‘우리말 가족 탐험대’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모두 목포대 국어문화원에서 출제 한 우리말과 관련된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며 마지막 한 팀이 남을 때까지 승부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도청 남악호수 주변에 한글사랑 활쏘기 등 한글 관련 경기 장소를 설치하고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이동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기 방식으로 우수 가족 5팀에게 전남도교육감 상장을 수여한다.

“전남도 우리말 겨루기 대회”는 한글을 사랑하는 도민 가족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도민은 전자우편(redcplx@korea.kr)으로 오는 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등 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기준금리 인하, 가계 도움 안돼

이자비용보다 이자소득 더 줄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15일 한국은행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세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분 만큼 시장금리와 예대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가 대출이자 등을 갚느라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가계가 예·적금 이자소득 감소액은 연간 4조4000억원으로, 이자비용 감소분의 1.6배에 달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낮추고 이번달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 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작년 말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은 2636조원으로 금융부채 1조2019조원의 2.2배다.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도 모든 가구에서 이자지출보다 이자소득 감소액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을 때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소득은 연간 2조1000억원 줄어 이자지출 감소분(1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연간 이자소득이 2000억원, 이자지출은 1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에서 이자지출을 뺀 이자수지는 2분위(-1000억원), 3분위(-2000억원), 4분위(-3000억원)에서도 모두 나빠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차질없는 건설 원칙”

윤장현 시장 동구 첫 순방

윤장현 광주시장(가운데)이 취임 후 자치구 첫 순방지로 동구를 방문해 최근 자치구간 유치경쟁이 치열한 2019년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 “선수촌은 대회공정에 차질없이 건설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치구와 시민들과 함께 토론과 설득을 통해 그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노회용 구청장으로부터 “선수촌이 동구의 재개발 구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장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건의를 듣고 이갈

이 말했다.

윤 시장의 ‘차질없는 건설 원칙’ 발언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선수촌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내에 건립부지 확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 시장은 특히 “U대회 선수촌 결정 당시 한 곳이라도 어긋나면 추진이 만만치 않았다는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수영선수촌 선수촌을 건립해야 한다”며 건립방식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동구는 이날 ▲용산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비 미확보분 3억5000만원 ▲충장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비 미확보분 20억원

등을 ‘시장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동구를 시작으로 첫 자치구 순방에 나선 윤장현 광주시장은 동구문화센터에서 동구민 105명과 만나 원탁회의 형식으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윤 시장의 과도한 의견 철회 원칙에 따라 참석자인 시민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50분까지 70분간의 일정 중 30분 넘게 시장과 시민의, 구의원 소개에 이어 인사말, 시장소개 등 지루한 의견 절차가 이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정윤희, 세월호 사고 당일 박대통령 안만나”

檢, 산케이 기사 사법처리키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루머의 당사자인 정윤희(59)씨는 당시 ‘제3의 인물’을 만났던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 3일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15일 검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지국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

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난 한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씨와 만난 한학자의 진술이 정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과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 /레스토렌즈/레인드름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 부작용: 수술초기 이안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1110-홍-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세션 30여종)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 볼세라, 써미지, 웨나트 복합치료
- ② 이드플 레이저 : 수주스팀,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 ③ 세오 레이저 : 쉐닝맥스, 디오오유즈오
- ④ 피부 미백 : 쉐닝맥스, 쉐닝맥스, 쉐닝맥스
- ⑤ 주름·출혈 : 프락셀, 울트라펄스, 프락셀, 프락셀
- ⑥ 인트라셀, 프락셀, 프락셀
- ⑦ 모공 : 엔티지, 프락셀5종
- ⑧ 비인 : 내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아빌딩B/D 1F | Tel : 385-7575, 1177 | 에스텍 :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윤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 528-1415 | 무료전화 : 080-707-7575 | 에스텍 : 525-7555

진료시간
상무점 · 평 일 : AM 9:30 ~ PM 7:00
· 토요일 : AM 9:30 ~ PM 5:00
· 윤임점 (미주점) : AM 9:30 ~ PM 8:30
· 에스텍 : PM 1:00 ~ PM 5:00
· 윤임점 · 평 일 : AM 9:00 ~ PM 8:30
· 토요일 : AM 9:00 ~ PM 4:00

www.clear-skin.co.kr 4044 진료문의 주무실041